

## 16. 전설 속의 존자암(尊者庵) 터 볼래오름<sup>32)</sup>

- ◎ 한라산(漢拏山) 제일 깊은 암자(庵子), 많은 문인(文人) 거쳐 가
- ◎ 임백호(林白湖)는 보름씩 묵고 시상(詩想)에 빠져

볼래오름에 절터가 있다는 말은 꽤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을 생각된다. 한 번 가보아야지 생각하면서도 그럭저럭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찾은 것은 1980년대 초로 기억된다.

제2횡단도로에서 영실 길로 접어들어 그 중간쯤에 있는 영실교(靈室橋)에서 차를 내리고 골짜기를 타서 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약 2km쯤 올랐던 곳에 봉우리가 있었고 바로 그 기슭에 1천 3백m나 되는 높은 지덴데 샘이 솟아 실계천이 흐르고 있었다. 실계천 근처 일대에서 유적지(遺蹟址)를 볼 수 있었다.

32) 『한라일보』 제90호 (1989. 08. 05).

## 첫 답사(踏査)서 탑신(塔身) 발견



| 부도(浮屠)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탑신(塔身)의 일부 | 이 사진은 1984년도에 필자가 2차 답사했을 때의 것.

두어 곳에서 집터로 추정되는 유지를 보았고 부도(浮屠)로 보이는 석제 탑신 등이 해체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그밖에 갓돌, 기단석, 초석 등 많은 석기 쪼가리와 무수한 기와 쪼가리들을 볼 수 있었다. 기와를 살펴보니 동연대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양식이 있었는데 꽤 오랜 기와로 추정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것까지 있었다.

유적·유물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절이나 암자로 보이는 소규모

의 집이 몇 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석탑(石塔) 등 부수 시설 등도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유물의 연대가 각각 다른 점으로 보아 연대를 달리한 건축이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 차례의 보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나는 첫 길에 준비가 없었던 만큼 그 뒤에도 이곳을 두어 번 더 찾아 사진도 찍고 크기도 재어본 생각이 난다.

이 불래오름을 탐방하고 나서 나는 과연 이곳에 어떤 유적이 있었는가를 추적해 보았다. 옛 지도를 찾아보았더니 불래오름을 표기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 18세기 초에 그린 지도에는 ‘플라악(佛羅



존자암 부도(서귀포시 하원동, 불래오름 1,200m 능선)

岳’으로 되어 있고, 19세기 말에 나온 지도에는 ‘포라악(鋪羅岳)’으로 되어 있었다. 그동안 내가 듣기로는 부처님이 처음 오신 봉우리라고 하여 ‘불래악(佛來岳)’이라고 들었지만 그런 지도는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존자암(尊者庵)을 바로 그 옆에 그려 놓고 있는 점이다. 보라악에 그린 것이 아니라 따로 봉우리를 그려 표기해 놓고 있는 것이다. 지도대로라면 불래오름에 존자암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옆 봉우리에 있는 것이다.

존자암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는 탐라국(耽羅國) 건국시대부터 있었다고 하여 전설적인 암자로 알려져 있다.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을 보면 존자암을 처음 세운 것은 삼성(三姓)이 건국할 초부터로 전해지고 있으나 삼읍(三邑)이 정립된 뒤 지세에 맞게 다시 암자를 바로 앉힌 것으로 되어 있다.



1993년부터 발굴사업이 진행되었으며, 1998년에는 존자암 복원사업이 전개되어 현재는 대웅전, 국성재 등이 세워져 있다.

### 처음은 영실(靈室)에 세워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에는 “존자암은 옛날에는 한라산 영실에 있었다. 동굴 속에 돌이 있는데 마치 중이 도를 닦는 모습과 같다. 그리하여 이 굴을 수행동(修行洞)이라고 전하고 있다. 지금은 한라산 서쪽 기슭 밖 십리 남짓에 옮겼는데 대정(大靜) 경(境)이 된다.”고 하였다.

나는 그밖에도 여러 『탐라지(耽羅志)』와 『읍지(邑誌)』, 그리고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을 비롯하여 실지 이곳을 찾았던 여러 사람들의 문집(文集)를 토대로 판단해 본 결과 바로 이 볼래오름 근처에 존자암 터가 있었다고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 다만 지도에서처럼 만 봉우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돌과 기왓장이 널려 있

는 바로 그곳이나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확인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불래오름 유적이 존자암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면 서도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문화유적층을 노리는 전문 도굴꾼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동행 했던 사람들은 물론 문화재 관계자, 또 여기에 관심을 나타내는 몇몇 스님들에게까지 존자암 유적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보안을 유지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곤 했다.

이것이 근자에 지상이나 방송 등에 밝혀지면서 이제는 소극적인 보안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보호책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 계제에 한두 가지 더 밝혀두고 싶은 것은 마치 존자암이 처음부터 이 불래오름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고려시대 이전에는 영실의 석굴과 삼존암(三尊巖)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암자를 불래오름으로 옮겨 세운 것은 『탐라지』에도 있는 것처럼 근세 초의 일이었다.

또 한 가지는 존자암이 역사는 오래지만 규모가 크거나 대단한 사찰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 선경(仙境)에 자리하여

불래오름 근처로 옮긴 뒤 당시 이 암자를 찾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처음은 기와도 올리지 못하고 나무와 흙돌담 집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와집을 짓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로 생각되며 집도 조그만 두서너 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존자암은 한라산록 가장 깊은 곳에 있었으므로 당시 한라산을 오르는 문인들 가운데는 이곳을 거쳐 간 사람이 많았다. 선조시대의 문인 백호(白湖) 임제(林悌)는 도근천(都近川)을 거쳐 이 암자에 왔다가 날씨 관계도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에 빠져 보름이나 묵고 있다.

이 긴 시간을 그는 탐승과 바둑 그리고 시로 보냈다.

다음은 그가 이 암자에 묵으면서 지은 시 가운데 한 구절이다.

옥동조진가학귀 玉洞朝眞駕鶴歸  
청운저습자연의 晴雲低濕紫烟衣  
잔기일국해천효 殘碁一局海天曉  
월조요단성두희 月照瑤壇星斗稀

옥동의 해맑은 아침 경치를 보고 학가마를 타고 돌아오니  
맑은 구름은 나직하고 자욱한 안개는 옷을 적시네.  
남은 바둑 한판 두다 보니 하늘에는 먼동이 터오고  
달은 선경을 비추고 북두성이 희한하구나.<sup>33)</sup>

33) 1578년(선조 11) 2월 11일, 임제가 한라산을 등산하기 위해 존자암에 머물면서 영실 즉 오백장군동(五百將軍洞)을 찾아 구경하다 돌아와서 지은 시. 임제는 영실(靈谷)에서 돌아왔으나 신선의 흥취를 누르기가 어려워 마침내 신선들의 노래인 「보허사(步虛詞)」를 짓는다고 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